크리스챤의 소망 2

신학박사 조 덕운

[베드로전서 1: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1.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바로 이 계절에 거둘 풍성한 수확을 소망하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 동안 수고하면서 농작물을 돌보는 수고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때가 되면 수고를 통하여 땅이 수확을 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과 함께 산 소망이 있으므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씨와 땅에 부여하신 열매 맺는 능력과 역사를 믿는 굳건한 믿음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 져서 풍성한 수확물을 창고에 들여놀 때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농부가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수고한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인 가을의 추수입니다.

비슷하게, 나비가 알을 낳으면, 알은 애벌레로 변하고, 이어서 애벌레는 번데기로 변하여 그 껍질 안에서 벌레의 몸이 나비의 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껍질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나비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게 됩니다. 나비의 생애는 크리스챤이 죄인의 인생에서 변환되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 나라로 가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나비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적 속성을 부여하셨으므로 애벌레가 나비가 될 산 소망을 본성으로 지니고 애벌레를 낳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에 대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애벌레처럼 땅을 기어가면서 사는 우리 인간이 신의 성품과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2. 왜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왜 크리스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야 합니까? 이 훌륭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각종 편리함에 가득한 세상,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어 평화롭고 풍성한 미래 세계의 비전, 그리고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 통합 신을 자유롭게 섬기는 새로운 '신세계'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에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구태여 성경에 바탕을 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미래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노력에 바탕을 둔 세상은 지난 20 세기, 그리고 21 세기의 세계 역사를 살펴 보면 온갖 자연적 및 인위적 전쟁과 재앙 투성이었습니다. 두번의 세계 전쟁과,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 그리고 얼마전에 드디어 종결된 대테러전 등의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 HIV 와 각종 암의 창궐에 이어서 2020 년 이래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비드-19 의 확산, 공산주의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와 개인 자유의 박탈, 이제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및 군사적 갈등의 확산, 커져가는 빈부의 차이, 심해지는 환경 파괴 등으로 이어진 문제 투성이의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좋아지기보다는 암흑의 정도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세계 10 대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중 자살율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두번째로 심각한 원인입니다. 각종 편리함과 부의 증가에도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로 인한 극단적 분열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매우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하는 이유는,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비유 [누가 12 장]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고 축적해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으면 헛된 일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 나라의 유산에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유산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도 못할만큼 훌륭한 유산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배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2:9]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의 행했던 일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으시고 그의 더러운 몸에 새 옷을 입히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부르트고 상한 맨발에 새 신발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축하 잔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탕자 아들은 단지 종의 하나로 여겨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회개의 심령으로 집에 왔는데….

3.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되는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과 유산을 갖게 되기를 소망해도 될까요? 그래도 되는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승리하셨고, 가난하고 병든 유대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서도 승리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하여 인간성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명을 끝까지 이루기로 승리하셨고, 불의한 재판 과정과 포악한 체벌 그리고 갈보리의 처참한 죽음을 통하여 모두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산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되는 정당성의 두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산에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읍니다.

[창세기 22:15-18]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즉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보인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것입니다. 18 절의 "네 씨"는 단수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며,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설파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26, 29]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가 산 소망을 굳게 붙잡아도 되는 세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대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23]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약속했다 쉽게 약속한 것을 위배하거나 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내어다 보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미리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훌륭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언약의 백성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백성들은 약한 믿음으로 실패 했어도 지금까지 약속을 모두 지키셨으며, 미래에 해당하는 약속을 또한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굳게 지킬만 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4. 소망의 날이 가까운 증거들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될 날은 "주님의 날 [Lord's Day]"로 일컬어지는 종말 [end-times] 입니다. 종말은 지구와 세계의 종말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era of God's grace]의 종말, 그리고 교회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종말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휴거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서 결혼식에 참예함으로써 그 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참된 크리스챤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기가 매우 가까움을 알려주는 다음 7 가지 표징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게 도와 줍니다.

1) 도덕적 패역의 급속한 확산: 성 도덕의 문란, LGBT 운동, 살인 폭력의 보편화 등 홍수 이전의 시대의 특성과 매우 흡사한 사회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37]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2) 여행 산업의 급증과 정보 산업기술의 비약적 발전

   [다니엘 12:4]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20 세기 후반부터 항공기와 컴퓨터 및 온 세계를 하나로 엮고 있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에 관하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먼 옛날 대언자 다니엘이 미리 이를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3) 이란이 이스라엘의 적국으로서 과격 이슬람 국가들의 맹주로 등장함: 1979 년 이란 혁명과 극단 이슬람주의의 등장으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구 상에서 없애야 할 나라로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에 노력해 왔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폭격과 특수전 활동을 가해 왔습니다.
4) 예루살렘의 회복과 제 3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1967 년 6 일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회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성전 연구소' [Temple Institute]가 수립되어 제 3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21:24]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점이 이제 비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세계 기독교의 포교와 전파 노력이 1967 년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과 나라들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났지만, 예루살렘의 점령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사는 소위 '메시아닉 유대인 [Messianic Jews]' 운동이 일어나 이제는 크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운동의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뒷받침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메시아닉 유대인의 수는 이스라엘에 약 15,000 명, 그리고 미국 내에 20 만명 이상이라고 추정되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5) 교회의 배도: 오늘날 드러나는 교회들의 배도는 '그 날'이 곧 올것임을 지시합니다. 교회들이 신도 숫자 증가에 혈안되어 예배가 거룩함을 잃고 마치 나이트클럽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장이 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모든 종교가 함께 연합하여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섬길 통합 종교로 나아가는 배교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6) 말세에 대한 무관심: 오늘날 목회자는 말세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말세론을 거론하면 오히려 이단시 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우리의 참된 소망인 휴거에 대하여 설교하지도 않으며, 그저 막연히 천국 가는 소망으로 이야기 함으로써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참 소망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도와 주지도 않고 자신들도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50]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누가복음 21:34-35]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7)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헤게몬 야욕으로 인한 서방과의 갈등의 심화, 코비드-19 의 확산, 더욱 활발해지는 화산 및 지진 활동 등으로 온 세계인의 불안과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7-8]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5. 우리의 참 소망

우리 크리스챤의 소망은 현세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현세를 나그네와 방랑자로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 소망을 지키고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시어 매일 그분으로부터 교육 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도록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휴거의 나팔 소리에 따라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갈 날이 가까워 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이 날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